

말레이시아 전자산업동향

1. 경제동향

구 분	94	95	96
GDP 성장률	8.7	9.0	8.3
소비자물가지수	3.7	3.8	3.9
산업생산	13.0	12.0	10.0

말레이시아 경제 성공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수출에 역점을 둔 제조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들수있다. 이 분야는 현재 말레이시아 GDP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수상의 “2020 Vision”은 200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과 투자유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계속해서 국민저축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저축은 '90년대에 GDP의 35%가량을 유지해 왔다. 뿐만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상당히 많이 유치해 왔는데 '89~'94년 동안 이러한 외국인투자승인액은 300억불에 달한다. 이중 각각 1/5은 일본과 대만

의 투자이다.

2. 전자산업동향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은 꾸준히 급성장해 왔는데 '88~'94년 동안의 연평균성장율은 30%를 웃도는 수치이다. '94생산증가율은 33%였다. '70년대초 전자산업 태동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를 생필품 제조수준에서 대규모 공장체제로 체제가 바뀌게 되었다.

전자산업은 '87년의 경우 최대의 수출산업분야였다. 정부에 의해 승인되는 전자산업분야의 프로젝트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80~'93년 동안에 총 1,024건의 전자산업분야의 제조부문관련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94상반기에는 이와는 별도로 7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을 주도해 오던것이 전자부품제조분야 - 특히 반도체 - 였는데 근래들어 가전제품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말레이시

아는 빠른 속도로 CTV, 오디오 제품, 그리고 VCR과 같은 가전제품의 수출생산이 기지화 되고있다. '89-'94년 동안 가전제품 총생산은 430%이상 증가된 반면 부품생산은 240% 증가되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컴퓨터와 컴퓨터부품의 생산은 25배나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은 외국기업들의 계속되는 투자로 인해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있다. 또한 근래들어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말레이시아로 몰려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기업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기업들이 이처럼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이유는 자국의 높은 임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자국에서는 높은 통화강세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훨씬 급속도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전자제품 및 부품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전자산업은 점차 국경이 없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생산기지의 對 말레이시아 이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세트제조업체들과 부품제조업

들은 말레이시아에 대단위 생산라인을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몇몇 업체들은 어떤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그들의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품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말

레이시아는 미국, 유럽, ASEAN, 그리고 일본시장을 향한 거대 생산·공급기지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가지 현상들이 도출되었다.

이중 하나는 몇몇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단순 조립과 검사공정만을 수행하다가 공정의 단계를 줄여 웨이퍼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현상중의 하나는 인프라 구조가 향상되었으며 여러 제조업체들이 과거에는 싱가포르나 일본, 대만에서 수입해오던 몇몇 핵심부품들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현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때 말레이시아가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높아져 가고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자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자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전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자산업을 다각화시키고, 또한 자유무역지대와 보세지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연계를 보다 더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공업화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하이테크산

말레이시아 전자산업 동향과 전망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4		1995		1996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 자 산 업 계	21,034	9,196	25,206	10,859	28,998	12,287
산업용기기소계	6,120	3,072	7,874	3,516	9,678	3,812
정 보 기 기	3,893	888	5,450	1,021	7,085	1,143
사 무 기 기	150	58	153	160	156	166
계측및제어기기	176	692	184	796	194	876
의료및산업전자	126	133	139	143	150	152
정보통신기기	1,775	1,301	1,948	1,396	2,093	1,475
가정용기기소계	6,511	509	7,655	543	8,622	573
영 상 기 기	3,353	236	4,023	259	4,627	280
C T V	1,817	143	2,244	162	2,653	181
흑 백 T V	12	2	12	1	11	1
비디오레코드	1,497	53	1,737	56	1,929	57
비디오카메라	27	38	31	40	34	42
음 향 기 기	3,156	145	3,630	153	3,993	159
라 디 오	2,832	124	3,264	131	3,597	136
테이프레코더	324	21	366	22	396	23
기 타	2	127	2	131	3	134
전자부품소계	8,404	5,615	9,677	6,899	10,968	8,004
능 동 부 품	6,153	2,309	7,076	3,002	7,783	3,602
트류 브	428	707	473	818	502	870
개 별반도체	687	218	767	270	818	308
I C 및기타	5,038	1,385	5,835	1,914	6,463	2,424
수 동 부 품	1,002	1,913	1,102	2,296	1,190	2,640
콘 덴 서	153	420	163	521	169	619
트랜스포머등	118	80	103	89	87	95
저 항 기	107	210	110	257	110	302
코 닥 터	111	195	117	226	119	250
릴 레 이	23	25	22	28	20	30
스 위 치	32	67	31	78	28	87
P C B	458	916	557	1,096	657	1,257
기 타	1,250	1,392	1,500	1,601	1,724	1,761

주)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6. Vol.II

업, 고부가가치산업, 자본집약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3. 업계동향

- '95년 11월에 오픈된 Kulim 하이테크공단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
- 대만의 Hualon사는 이 공단에 4억불을 투자하여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미국의 실리콘크리스탈제조업체들과 컴퓨터 메이커들은 이 공단에 각각 5억불씩을 투자하였다.
- 세계 최대의 디스크제조업체인

- Komag사는 두번째 아시아 공장을 말레이시아에다 건설하고 있다. 첫번째 공장은 Penang에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두번째 공장은 Sarawak주에 소재하고 있다.
- PCB제조업체인 GG Circuit Industries사는 일본의 Fuji사와 합작으로 양면보드와 다층보드생산공장을 말레이시아에 건설할 계획이다.
- Hualon사는 말레이시아에 8"웨이퍼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규모는 3,000만불이며 '97년이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 Harris사는 말레이시아를 반도체제조에 있어서 아시아 본부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말레이시아공장에 1억불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 미국의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업체인 Quantum사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제조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이전 중이다.
- Philips & JVC Video Malaysia사는 VCR생산규모를 연간 35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참고로 동사의 '94생산규모는 240만대 수준이었다.

'95 아시아 전자부문 100대 기업' 발표

지난해에 국내 대기업들은 약진한 데 반해 중견업체들은 아시아지역 1백대 기업군에서 대거 탈락하는 등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일렉트로닉비즈니스아시아誌가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일본 제외) 전자부문 1백대 기업 리스트」에서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은 약진한 데 반해 중견업체들은 대거 탈락하는 등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지 7월호에 발표된 「95 아시아 전자부문 1백대 기업 재무재표」를 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전자매출 규모에서 94년에 이어 10위권내 선두그룹을 휩쓸어 아시아지역의 맹

주요 자리를 굳히고 있다. 10위권내 업체로는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를 비롯, LG전자·현대전자·LG반도체·삼성전관·대우전자·삼성전기·아남산업 등 국내 8개 업체가 차례로 랭크됐고 대만업체는 에이서(2위)와 마이텍(9위) 등 2개사만 포함됐다.

특히 삼성그룹은 1위의 삼성전자와 삼성전관(6위)·삼성전기(8위)·삼성항공(21위) 등 전자관련 4사가 모두 상위에 랭크돼 전자주력업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LG그룹도 LG전자·LG반도체·LG정보통신이 각각 3위·5위·23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그룹도 대우전자(7위)·대우통신(14위)·오리온전기

(16위) 등 3개 계열사가 20위권내에 들었고 64위의 대우전자부품까지 전자관련 전 계열사가 1백대 기업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만기업들은 10위권내에는 2개사만 진입했지만 20위권과 30위권에는 대거 포진, 개미군단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30위권내에 오른 기업의 수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13개사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10위권내에서는 LG전자가 대만의 에이서에 밀려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으며 대만의 마이텍이 13위에서 9위로 꺾충 뛰어올라 주목됐다.